

# “통합·상생 리더십...통합특별시 새 미래 열어야”

### 광주상의·경총 '당선자에 바란다' 발표 시장·교육감에 지역 과제 속도감 당부 대기업 유치·청년 일자리 최우선 과제

광주지역 경제계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당선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경제계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통합과 상생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지역의 생존 전략인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광주와 전남 통합은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광주상의는 “광주와 전남은 행정의 벽을 넘어 산업과 인프라, 인재와 자원을 하나로 묶어 더 큰 경쟁력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AI, 에너지,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통합특별시의 성장 비전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 유치와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이 필수라는 게 광주상의측은 설명이다.

광주상의는 “과감한 규제 개선과 투자 기반 확충을 통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공공항 이전 문제 해결과 광역교통망 확충,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 공급체계 구축 등 지역의 시급한 핵심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당부했다.

광주상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미래세대를 위한 담대한 비전과 강력한 실행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지역경제계 역시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지역 직업계고와 유치 기업 간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학생들이 유치 기업 등 산업 현장에 부응하는 실무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대학 및 유관 경제단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 교육 생태계를 조성, 청년들이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지역 미래 산업에 관심을 갖고 지역 내에서 성장·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멀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특별시장 당선인에게 통합특별시의 확대된 도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기업 유치 정책과 선제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앵커기업(지역 산업 견인 선도기업) 및 첨단 미래 산업 기업 유치한 세제 혜택, 부지 제공 등 전방위적 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 ▲AI, 미래형 모빌리티, 가전산업 등 지역 핵심 축의 고도화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종합 지원책 마련 ▲청년층의 고용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는 등 지역 경제 도약을 위한 3대 당면 과제를 건의했다.

이어 신입 교육감 당선인에게는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및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교육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경총은 “지역 직업계고와 유치 기업 간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학생들이 유치 기업 등 산업 현장에 부응하는 실무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대학 및 유관 경제단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 교육 생태계를 조성, 청년들이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지역 미래 산업에 관심을 갖고 지역 내에서 성장·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 롯데百貨광주점, '그로서리스터프' 팝업 운영

### 해외 편집숍 연상 다양한 브랜드 한자리 나만의 감성 담아 일상을 새롭게 연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3일 “지하 1층 중앙 행사에서 감각적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그로서리스터프(Grocery Stuff)’ 팝업 행사를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그로서리스터프는 다양한 브랜드와 개성 있는 아이템을 한자리에서 큐레이션해 선보이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일상 속 소품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꾸미고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팝업에서는 해외 편집숍을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개성 있는 디자인의 커스텀 키캡을 비롯해 린수즈와 욱실화, 멀티탭, 생활용품 클리너, 하리보 캐릭터 마그넷 등이 준비됐다. 특히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품에 독특한 디자인과 감성을 더한 아이템들이 다수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색다른 쇼핑의 즐거움과 함께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로 일부 준비된 제조사에만 기회가 부여되는 등의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차기 단계 계약 구매요청 기한을 최소 계약종료 3개월 전으로 설정해 전력 기자재 조달의 안정성을 높여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5월14일 내부 절차서 등 관련 지침 개정을 마쳤다. 이어 전력기자재 전자조달시스템(SRM)을 통해 22일 계약 방식이 변경되는 품목을, 28일 업무 절차 개선 사항을 각각 공지했으며 6월1일에는 각 제조사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를 시행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 기능을 강화한 제도 개선을 제조사간 정보 비대칭을 사전에 예방해 보다 많은 제조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고, 구매요청 기한 설정으로 제조사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임재만기자

## 코스피 급등락 '사이드카 발동' 금융위기 이후 최다

### 변동성 극심 올해 들어 20회 집계 2002년 이후 총발동 건수의 25%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20차례)가 현재의 발동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이후 전체 건수의 4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총 20회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전체 사이드카 총 80회의 25%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발동 횟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연간 기록(26회)에 불과 6회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월별로는 2월 3회, 3월 7회, 4월 3회, 5월 6회 발동했으며 이달 들어서도 지난 1일 1회 발동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사이드카 발동이 기록됐다.

올해 들어 반도체주 중심의 증시 급등세가 본격화한 데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겹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 발동된 사이드카 가운데 매수 사이드카는 11회, 매도 사이드카는 9회였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 급등락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는 1996년 11월 25일, 코스닥 시장에는 2001년 3월 5일부터 도입됐다. 다만 지금의 '기준대비 5% 이상 변동 및 1분간 지속' 요건이 적용된 것은 2001년 5월 이후부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사이드카가 11차례 발동됐다. 이 또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록(19회) 이후 최다다.

매수와 매도 사이드카는 각각 8번, 3번 발동됐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변동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직전 거래일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코스닥 시장 서킷브레이커는 지난 3월 4일 한 차례 발동된 바 있다. /연합뉴스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 한전, 전력기자재 계약 절차 개선

### 계약방식 변경 시 사전예고 기간 운영 제조사준비기간 보장 조달 안정성 제고

한국전력이 전력기자재 구매 계약과 관련 '사전예고 기능 강화', '단기계약 구매요청 기한 설정' 등 계약 투명성과 조달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한전은 3일 “기준에는 물자수급계획에 의해 연초 통합 공시제 제조사가 계약 방식 변경에 대응할 준비 시간이 부족했지만 개선된 업무 절차에서는 각 품목별 신규계약 체결 전에 한전 검토절차와 제조사 사전예고 기간(5개월)을 도입해 제조사에 최소 5개월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초 도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총액계약 구매가 원칙임을 명문화해 연간 단계계약

# 1913 송정역시장 맥주페스티벌

06. 06(토) 17:00~21:00 | 1913송정역시장 일대

기억과 감사가 머무는 현충일, 1913 송정역시장과 함께합니다

군인, 참전용사, 경찰, 소방관 인증 시 쿠폰 지급

재즈브루스 "마룻바닥"

스포츠치어리딩 "천무"

매직쇼 "육쇼"

체험프로그램

※ 1만원 이상 상권 이용 영수증 지참시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재료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부채만들기 : 선착순 60개 무료 / 이후 유료 운영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광산구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리내상사 사업추진단